

# 올해 기록적 폭염...전력 수급 문제없나

### 정부, 최대 전력수요 전년보다 132만kW 증가한 8650만kW 예상

### 지난해에 폭염과 발전소 정지로 전력 예비율 5%대까지 떨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수요 예측에 비해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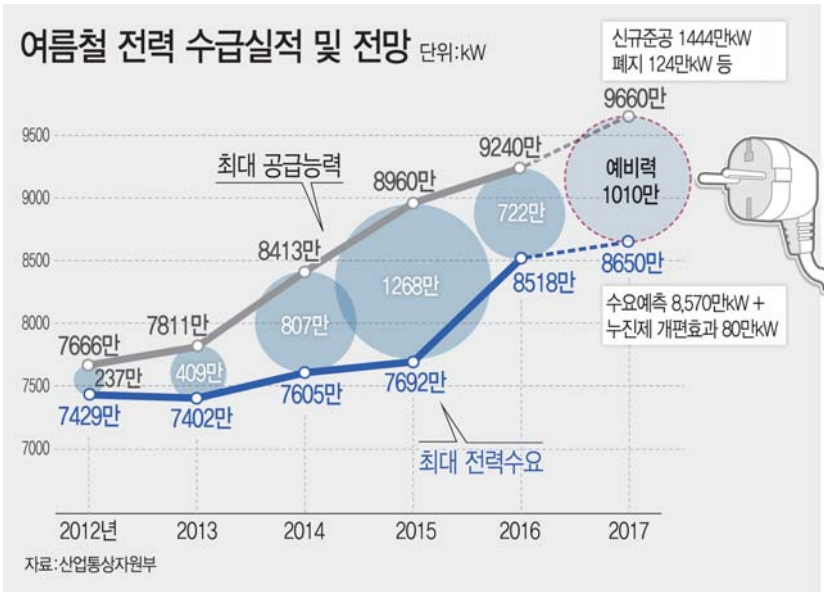
다만 예측을 웃도는 전력 수요와 원전 등 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폭염과 누진제 개편 등의 수요 증가요인으로 지난해보다 132만kW(킬로와트)가 증가한 8650만kW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피크 시 전력 공급능력이 9660만kW로 1010만kW(예비율 11.7%)의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를 유지. 전력수급에 있어 위기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중지되는 등 발전기 4대가 폐지됐지만 신규 발전기가 15대 늘어 1444만kW 공급능력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전력 수요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를 초과하는 경우다. 지난해에 산업부는 올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 817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때 예비력이 5.98%(예비력 503만kW)를 기록했다.

예비력이 500만kW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kW부터 100만kW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예비전력이 300만kW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긴급절전이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한 시간 안에 발전이 가능한 양수발전소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수위를 가득 채웠다. 또 당시 정비 중이었던 월성 1호기와 당진 3호기도 재가동하

기도 했다.

올해에는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이 올 경우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를 시운전할 예정이다. 또 변압기 전압조정과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냉방기 원격제어 등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원전 건설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않지만 신고리 5호기가 전력 수급에 반영되는 2021년 3월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사 백지화를 놓고 공론화 작업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공사 초기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예다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1500M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까지 포함하면 취소가 예상되는 원전 설비용량은 1만1600MW로 늘어난다. 이는 2029년에 정부가 계획한 원전 발전량(3만1832MW)의 30.2%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롯데마트, 보양식 매출 평소 2배 이상... '초복 효과' 특출

### 초복 포함 2주간 매출, 삼계탕, 장어, 전복 등 2배 넘게 신장

이달 12일 초복을 앞둔 가운데 롯데마트가 지난해 대표 보양식으로 불리는 삼계탕의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니 평균 2배 이상의 초복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초복 당일을 포함한 2주간(D-13~D-day) 매출을 그 직전 2주간(D-27~D-14) 매출과 비교해 초복 대표 메뉴인 삼계탕 관련 상품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삼계탕의 메인 재료인 '마리용닭(백숙용 닭, 토종닭)'의 경우 초복 2주간 매출이 그 직전보다 2.5배(150.7%) 이상 늘어났으며, 인삼은 2.6배(160.6%), 참쌀과 대추도 각 56.8%, 60.6% 씩 매출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중화된 오리고기 역시 초복 인접한 무렵에는 백숙용 오리의 매출 신장률이 3.4배(246.6%)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리고기 전체로는 51.7%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어와 전복 등 수산 보양식의 초복 효과도 높게 나타나 장어의 경우 초복 직전 2주간 매출이 그 직전 2주에 비해 176.5% 늘어났으며, 전복도 119.9% 증가했으며 장어, 전복보다 덜하지만 낙지도 45.9%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숭아와 포도 등 제철 과일도 2배 가량 매출이 신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초복 효과도 있지만 초복과 인접해 출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여름 대표 과일로 여겨지는 수박은 같은 기간 -7.5% 매출이 줄었고 참



의 역시 -33.9% 매출이 감소했다.

이처럼 초복 효과가 평소 매출의 2배 이상을 상회하다보니 유통업체들 간의 초복 상품 경쟁도 치열하다.

롯데마트는 초복 당일인 이달 12일까지 다양한 보양식을 준비해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대표적 품목으로 동물복지인증 마크를 받은 '백숙용 닭(700g/국내산)'을 3980원에 판매하며, 500g 가량의 영계 2마리(국내산)도 5200원에 선보인다.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손질 민물 장어(국내산)도 저렴하게 준비해 100에 4980원에, 손질 민물 장어(국내산) 1마리도 2만1780원에 판매하며, 전복 5마리를 1만 2500원, 해동 낙지(중국산)를 1마리 980원에 선보인다.

제철과일인 '아삭한 복숭아(4~7입/1팩/국내산)'도 9900원에, '하우스 캄벨 포도(1kg/1팩/국내산)'도 7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승 롯데마트 신선식품부장은 "일찍부터 더워지는 시집돼 있지만 초복과 인접해 출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여름 대표 과일로 여겨지는 수박은 같은 기간 -7.5% 매출이 줄었고 참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4개월 만에 감소

지난 4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84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2017억원)에 비해 9.1%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1월 9.9%, 2월 9.6%, 3월 9.7%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4개월 만에 소폭 둔화된 것이다. 이에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달(45조5761억원)에 비해선 3.8% 줄어든 것이다. 개인 일반구매가 전달대비 3.2%(31조2261억원→30조2102억원) 줄었고, 개인

할부구매는 1.85%(8조9731억원→8조8065억원), 개인 현금서비스는 8.59%(5조2768억원→4조8235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1.1을 기록하며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실제 소비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6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다음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시스

## 세븐일레븐, 제철 과일 활용 신제품 출시

### 300ml 중용량 자두우유 · 사과우유 · 업계 단독



세븐일레븐은 제철 과일을 활용한 가공우유 2종을 업계 단독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상품은 300ml의 중용량 우유로 'PB자두우유'와 'PB사과우유'다. 'PB자두우유'는 여름 과일인 자두의 농축과즙을 활용해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구현한 상품이며, 'PB사과우유'는

여름이 제철인 청사과의 농축과즙을 사용해 상큼한 맛이 특징인 상품이다.

세븐일레븐은 가공우유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가공우유 시장은 지난해 7218억원으로 지난 2013년 5369억원 대비 34%나 급성장했다. 세븐일레븐도 전체 가공우유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우유 매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1월 1일~7월8일)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로또 제 762회 당첨결과 (2017년 7월 8일 추첨)

1 3 12 21 26 41 + 16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0	1,631,432,063 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3	51,302,896 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44	1,330,261 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3,406	50,000 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71,344	5,000 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추첨일 경우 익연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척이는요... 자레치료국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